

담양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김은희**

<차 례>

1. 머리말
2. 절대 조화의 자연, 진락(眞樂)의 경지 - <면앙정가>
3. 현실과 이상의 갈등, 그 일시적 해소 - <성산별곡>
4. 맺음말 - 담양의 장소성, 그 차이와 의미

<국문초록>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은 강호시가로서의 존재양상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적 성취의 지점이 다르다. 담양이라는 장소와 관련하여 그 체험과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 ‘담양’은 구체적 삶의 경험을 담지한 곳, 仙界-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곳, 歸隱의 이상적 공간,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한 곳, 따라서 조화와 합일에 의한 안정과 眞樂을 추구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었다. 특히 특정시대(16세기, 사화기), 특정지역(담양), 특정집단(호남사림)의 장소성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두 작품에 내재한 ‘담양’은 그 장소성에 차이가 있다.

만년(70대)에 창작된 <면앙정가>의 ‘담양’은 송순의 고향이었으며, 연륜과 인생의 깊이, 오랜 경험 끝에 도달한 최상의 경지로서 ‘자연’이었다. 반면, 20대 중후반에 창작된 <성산별곡>의 ‘담양’에는 어린 시절 유배지 체험과 유랑의 고통, 10년의 학문과 문학적 성장기 이후,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송강의

* 본 연구는 2013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체험과 관심이 녹아있다. 송강에게 ‘담양’은 ‘고향 같은 곳’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성장시킨 곳이었지만, 아버지의 좌절과 방황 끝에 정착한 곳, 근원적 상처를 지닌 채 찾아들었던 타향이었다.

따라서 <면앙정가>의 ‘담양’이 절대조화의 자연세계, 여유와 달관, 자궁과 眞樂의 장소성을 지닌 곳이라면, <성산별곡>의 ‘담양’은 眞仙이라는 만족감에 기대어, 현실과 이상의 갈등, 그 일시적 해소의 장소성을 지닌 곳이었다. 멈추어 아름다운 ‘담양’의 자연 속에서도 時運과 人心, 世事로 인한 갈등과 번민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곳, 완전한 몰아일체에 이르지 못한 곳이다. <면앙정가>의 ‘담양’이 송순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로서,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 부조리와 불안, 반감과 분노가 전혀 없는, 자궁심과 평정심·정서적 안정감을 지닌, 眞樂에 도달한 귀의처였다면, <성산별곡>의 ‘담양’은 자기 정체성의 회복, 안정과 성장의 안식처로서 仙境과 歸隱에 대한 동경과 예찬의 대상임에도, 미진한 현실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녹아 있는 곳,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출렁이는 갈등, 젊음의 불안과 욕망이 내재한 곳, 자연에 완전히 몰입·동화되지 못한 채, 그 일시적 해소를 도모했던 의지처였다. <면앙정가>와 달리 번민과 시름, 현실에 대한 미련이 尙存하는 곳이었다.

핵심어 : 담양, 장소성, <면앙정가>, <성산별곡>, 자연, 歸隱, 조화, 眞樂, 현실, 갈등

1. 머리말

고전시가사에서 ‘담양’은 호남사림의 근거지이자 중심지로서 그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던 장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자연시와 관련하여 사대부들의 체험과 인식이 반영된 장소로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 한시와 가사,

시조를 짓고 즐기면서 문인들이 가단을 이루어 함께 읊조리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¹⁾는 점에서 ‘담양’이라는 장소와 관련하여 그 체험과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송순의 <면양정가>와 정철의 <성산별곡>은 강호가사의 대표적 작품, 강호가도의 명작으로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남가단, 나아가 사대부 가사의 전형을 이루었으며,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그래서 영향²⁾관계, 그 유사성과 동질성은 선학들에 의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두 작품 모두, ‘담양(면양정, 서하당, 식영정)’이라는 장소³⁾를 노래하고 있는 점은 중요하고 또 매우 흥미롭다. 이 시기, 사림문학은 賞自然을 통해 철학적으로 천인합일의 경지를 체득하고, 미학적으로 물아일체의 희열을 맛보는 것이 규범적·이상적 삶이었고, 자연의 모든 사물과 현상으로부터 우주질서의 조화로움을 발견하고, 天의 법칙과 理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眞樂을 추구하던 문학⁴⁾이었다.

이 글에서는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송순과 정철이 ‘담양’이라는 장소에 대해 갖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경험, 작가 개인의 독특한 의식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는 작품 속의 장소는 그 곳을 선택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가의식의 반영이며, 당대 사회나 문화적 특성의 반영이기도 하다⁵⁾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작품의 ‘담양’은 문학적 ‘배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6, 331쪽

2) 대표적으로 조동일, 위의 책, 310쪽; 정익섭, 『호남가단연구』, 진명문화사, 1975, 132쪽; 박영주, 『정철평전』, 중앙 M&B, 1999, 57쪽 등에서 구성, 사설의 유형성, 어구배치의 유사성, 풍류의 공통성, 우리말 감성, 전반적 짜임새나 내용상의 상통점, 시적 정조와 표현상의 특징, 주변 경관 묘사 수법, 사대부적 풍류와 흥취를 노래한 점 등에 있어서 그 영향관계를 분석·정리해 놓았다.

3) 이후, 이 글에서는 면양정, 서하당, 식영정, 성산, 창평 등은 모두 ‘담양’과 동격의 의미이다.

4)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437쪽

5) 김수경, 「옥국재 가사 <착정가>에 나타난 ‘장소’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34, 한국시가학회, 2013, 85쪽

핵심적 요소,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장치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당연시되던 송순과 정철의 풍류 정신, 풍류의 생활화라는 평가에 대한 ‘장소’ 중심의 접근을 목표로 한다.

송순에게 ‘담양’은 벼슬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생애를 보냈던 고향이며, 그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생활의 중심으로서 삶의 원칙을 깨닫고 세우며 실천하게 했던 가르침과 성장의 장소였다. 인적 交遊와 교류 체험을 통해 송순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이었고, 부조리와 불안, 반감과 분노로 힘겨울 때마다 돌아와 자긍심과 평정심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며 나아가 이상적 眞樂에 도달하는 의지처⁶⁾였다.

정철에게도 ‘담양’은 특별한 곳이었다. 16세에 내려와 27세에 과거 급제하여 서울로 올라가기까지 10여년을 살았으므로 ‘담양’은 고향과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를 전전하기 7년, 오랜 방랑 끝에 정착한 곳,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 아늑한 대숲의 고장⁷⁾, 본격적인 배움의 길이 열리고 학문이 깊어진 곳, 결혼과 우정의 터전이었으며,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게 했던 의미 있는 곳이었다. 학문적 스승과 벗, 삶의 가치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 뜨게 해 준 곳, 안정과 평화를 준 곳이었다.

그런데 이 ‘담양’이 여유와 달관, 자긍과 眞樂의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현실과 이상의 갈등, 번민과 시름, 그 일시적 해소의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담양’이 근원적으로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과 은거지로서의 장소성은 두 작가에 공통적이지만, 각 작품 속에 드러나는 ‘장소성’⁸⁾은 송순과 정철이 다르다. 이 글은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이 강호시가로서의 존재 양상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적 성취의 지점이 다름에서 출발하였으며, 특히 ‘담양’이라는 동일

6) 김은희, 「송순 시가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 『한민족어문학』 제6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188쪽, 208쪽

7) 박영주, 앞의 책, 21쪽

8) 장소성(placeness) - 장소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그것으로 인지된 특성, 에드워드 렐프 저, 심승희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67쪽 참고

한 장소를 노래한 두 작품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 다름의 의미를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두 작품에는 특정시대(16세기, 사화기), 특정지역(담양)에 살았던 특정 집단(호남사림)의 장소성이 투영되어 있다. 이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 크게는 ‘담양’, 작게는 ‘면양정’ ‘서하당’ ‘식영정’ 등 특정 장소에 대한 송순과 정철의 인식을, 나아가 그 총체로서 ‘자연’의 의미를 비교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작품이 두 작가의 삶의 직접적 표현임에 주목한다. 즉 작품을 전기적 사실과 관련시켜 볼 것이며, 그 내용을 사실에 입각한 진술, 창작 당시 삶의 직접적 반영, 심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작품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다.

따라서 이 글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송순과 정철의 삶의 한 국면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문학적 반응으로서의 <면양정가>와 <성산별곡>, ‘담양’이라는 특정 장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보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16세기 호남 사림이 주도했던 ‘강호’ ‘자연’의 의미가 보다 깊이 있고 섬세하게 드러나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 글은 최근⁹⁾ ‘장소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쓴 송순 시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¹⁰⁾와, 이후 ‘담양의 장소성’으로 확대된 관심의 결과물이다. 특히 같은 장소를 노래한 정철의 <성산별곡>과의 대비적 고찰을 통해 고전시가에서 ‘장소성’의 의미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기대해 본다.

움직임이며, 개방이며, 자유이며, 위협인 공간과 달리 장소는 정지(멈춤)이며,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다. 인간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 즉 낯선 추상적 공간은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가 된다. 어떤 지역이 친밀한 장소로 다

9) 지난 2012년 11월, 한국시가학회 학술대회가 ‘고전시가의 장소성 탐색’을 주제로 열렸었음.

10) 주6) 참고, 따라서 송순의 경우, 자연스럽게 주6) 논문 내용이 일정 부분 인용, 활용됨을 밝힌다.

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역에 대한 느낌(또는 의식), 즉 장소감을 가지게 된다.¹¹⁾

추상적·물리적인 ‘공간’이 문화적·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를 담게 됨으로써 ‘장소’가 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특징을 지닌 공간이 ‘장소’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인간의 체험이나 인간의 이상적 현실적 의도를 필요로 한다. 즉 인간이 어떠한 태도나 가치를 투사함으로써 공간이 사람들의 특정한 의도나 요구에 따라 안전하거나 위험한, 혹은 편안하거나 불편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라는 말은 이러한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체험을 통해 어떠한 공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¹²⁾

문학작품에서 장소는 작가가 선택한 의미 있는 구체적인 곳, 그가 지향하거나 애정을 가진 곳이다. 인간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생활이 뿌리내리고 있는 곳이 장소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개인적·문화적 정체성, 안정감의 근원이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하는 것이다.¹³⁾

11) 이-푸 투한,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4, 7-8쪽

12) 김수경, 앞의 책, 88-89쪽

13) 에드워드 렐프 저, 앞의 책, 104쪽

2. 절대 조화의 자연, 진락(眞樂)의 경지-〈면양정가〉¹⁴⁾

2.1. 송순(1493-1582)의 삶과 경험 그리고 장소성

기존 논의에 의하면 송순 문학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담양이라는 장소 체험에 의해 확대·완성되었다. 호남가단을 처음 마련한 사람¹⁵⁾으로 평가되는 송순은 그가 벼슬길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생애를 보냈던 담양을 빼고 논의가 불가능한 시인이다. 재지사족의 후예로서 호남사람이라는 점, 사화기라는 갈등의 시대에 중앙에서 벼슬하기도 하였으나, 향리인 담양에서 강호의 삶을 살기도 하였다는 사실¹⁶⁾은 송순 문학 이해의 전제로서 중요하다. 또한 성종 때 태어나 다섯 왕을 섬겼고, 한 번의 유배와 몇 번의 파직을 겪었지만 정치적 혼란기에 50여년 벼슬살이를 큰 무리 없이 살아 내었고, 90세로 장수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평가도 그러하다.

송순은 ‘담양’에서 당시 최고의 학자들인 박상, 박우, 송흙, 송세립 등 山林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하였으니, 이들은 그의 학문적·사회적·예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50여년 벼슬살이에서 겪은 몇 번의 파직과 유배의

14) 김은희, 앞의 논문, 185-203쪽 참조

1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6, 330쪽. 송순은 생애 및 문학 전반의 면모와 위상, 시학적 특성까지 잘 정리되어 있다. 최근 주요논의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종건, 『면양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3;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앞의 책, 433-450쪽;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 연구』,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107-135쪽.; 성기옥, 「宋純의 시조 한 수가 들려주는 시의 꿈 하나」, 『시안』 제2권, 1998, 61-77쪽; 김성기, 『면양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김학성, 「면양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한국고전시가의 전통과 계승』, 성대 출판부, 2009, 45-71쪽; 최상은, 「송순의 꿈과 〈면양정가〉의 흥취」, 『제13회 전국가사문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2. 11, 9-27쪽

16)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앞의 책, 434-435쪽. 이 글은 송순 시가의 시대적·계층적·지역적 기반, 사상적·이념적 특징, 스승·교우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큰 참고가 되었다.

고통 속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부당한 정치현실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은 ‘담양’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가르침, 특히 스승 박상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그가 평생 삶의 철학으로 삼았던 ‘敬과 直’- 에 의한 것이었다. 송순의 친구는 깊고 얇은 마음을 모두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후배는 평생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친구와 후배는 80여명¹⁷⁾에 달한다. 성수침은 “온 세상의 선비가 모두 송순의 문으로 모여들었다”고 감탄하였다. 송순은 정치계, 문학계, 사상계에서 이름 있는 인물들과 교류¹⁸⁾하였으며, 어려운 시대를 탈 없이 90년을 살아내어 후배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준 실천적 모범이었다. 훌륭한 정치가였으며 친구 및 선배와 사귀에 능숙했고, 후배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이는 그의 인품과 학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송순에게 ‘담양’은 그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생활의 중심으로서 삶의 원칙을 깨닫고 세우며 실천하게 했던 가르침과 성장의 장소였으며 인적 交遊와 교류 체험을 통해 그를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이었다. 송순에게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호남사람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그 선구자가 되게 했던 것이다.

87세 10월, ‘면양정’의 회방연(回榜宴)은 송순 삶의 의미가 감동적인 경험으로 다가오며, 그 삶이 인간다운 삶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금상계서 호조에 명하시어 술을 내리시고 축하하는 것이 꼭 급제에 합격할 때 내리신 국은과 같았다.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고봉 기대승, 백호 임제, 그리고 각 고을 수령 백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전라도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밤이 깊어가자 선생께서 약간 취기가 있어 따뜻한 안방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니 정송강께서 말씀하시되 공을 남여(藍輿)로 모시자면서 우리 모두가 남여를 메자고 하였다. 일시에 모두가 남여를 붙들고

17) 김성기, 앞의 책, 275-276쪽에서는 ‘면양정 가단’으로 정리하면서 100명에 달한다고 한다.

18) 이종건, 앞의 책, 17-30쪽 참고, 대표적으로 신광한·이황·김인후·기대승·고경명·정철·임제 등

내려가니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여 광영스럽다며 이야기하기를 이는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 하였다.”¹⁹⁾ 이 광경은 가족, 후배, 친구들, 각 고을수령과 백성이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따뜻함과 행복감으로 우리를 이끈다.

‘담양’은 송순에게 고향이다. 송순은 늘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온다. 현실정치권에서 받은 상처와 갈등의 치유장소로서, 친밀하고 익숙한 체험의 장소로서, ‘담양’은, 어머니처럼 변함없이 그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담양’에는 순환적인 회귀의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다. ‘담양’은 그에게 생활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근원적인 삶의 의지처로서 자연과의 유대 속에 사대부로서 명분을 다짐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지닌다. ‘담양’은 정지(멈춤)이며, 그가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곳으로서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였다. ‘담양’이 그 친밀함으로 안전하고 편안하며 이상적인 장소감(sense of place)을 가지게 되었음이다.²⁰⁾ 직접적이고 친밀한 경험, 자연이라는 상징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개념적인 경험을 통해 ‘담양’이라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면양정’은 자기를 응시하면서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삶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평정심 회복에 도달하는 곳이다. 이러한 송순의 마음과 그 의미는 다음 시에 잘 드러난다.

<俛仰亭歌 三言>²¹⁾

俛有地 굽어는 땅이요
 仰有天 우러러는 하늘이라

19) 김성기, 앞의 책, 441쪽

20) 이-푸 투한, 앞의 책, 7-8쪽, 15-20쪽

21) 『俛仰集』 卷之三, 詩, <俛仰亭歌 三言> a_026_232c,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이후 번역은 김학성, 최상은, 이종건, 최한선 등 여러 학자를 참고하여 정리.

亭其中	이중에 정자지어
興浩然	호연한 흥취 일어나니
招風月	풍월은 불러들이고
搵山川	산천은 가까이 두어
扶藜杖	여장에 의지하여
送百年	평생을 살리라

정자의 위치와 자연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흥취를 노래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면양’에는 ‘우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보아 인간에게 부끄러움이 없다(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맹자』 「盡心」 편)는 송순의 지향이 담겨있다. 풍월과 산천을 거느리고 사는 호연한 흥취를 노래했지만, 거기에는 평생 부끄럼 없는 몇몇한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송순의 작품이 도가적 현실 도피의 신선경으로 빠져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범적 존재로서의 하늘과 현실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고 있는 땅 사이에 굳건히 서 있는 ‘면양정’, 초월의 세계를 꿈꾸며 현실세계를 떠나려 하는 듯하지만 면양정은 늘 거기에 있다. 송순이 꿈꾼 흥취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벗어나려는 듯 들떠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산천을 불러들이고 끌어들이며 함께 흥겨워하는 인간적 정취가 있다.²²⁾

이 시에는 송순의 우주관과 자연관, 인생관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천인합일의 경지와 자연과의 물아일체, 호연지기의 흥취를 추구하는 士林으로서의 자세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면양정’이라는 장소 및 송순의 삶과 관련하여 선언적이고 종합적이며 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송순이 지향하는 자연속의 삶은 무위자연의 도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본성대로 인간의 땅에서 윤리를 실천하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유가적인 것이며, ‘면양정’은 현실초탈의 장소가 아니라 조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체험적 현실이 된다.

22) 최상은, 앞의 책, 18쪽

송순의 작품을 바라볼 때, 단순히 강호한정이라는 상투적·단정적 접근 보다는 송순 삶에 직결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작가의 체험에 기반 한 분석이어야 한다.

<俛仰亭>²³⁾ *司諫罷歸後作(사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짓다)
 百里群山擁野平 백리 안의 여러 산이 평야를 에워싼 곳
 臨溪茅屋幸初成 시냇가 가까이 초옥을 이루었네.
 此身不繫蒼生望 이 몸이 백성들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으니
 宜與波鷗結好盟 갈매기와 더불어 좋은 짝 이루었네.

司諫으로 있다가 돌아와 매입해 두었던 터에 면양정을 건립한 41세 때 지은 시이다. 김안로의 횡포가 극에 달한 시기에 어진 선비들을 배척하자 돌아온 歸隱을 읊었다. 1.2구에서는 산과 평야, 물과 초옥이 어우러진 ‘면양정’의 승경을, 3.4구에서는 벼슬길에서 물러나 갈매기와 짝을 이루는 처지를 나타냈다. 이 또한 보다 근원적인 삶, 친밀하고 안정적인 삶을 구체화한다. 부정적 정치현실로 인한 울적함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위안 받고, 평정심 회복을 돕는 ‘면양정’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처신으로 인한 자긍심보다는 참 정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이 드러나지만, 이는 자연과 하나 됨을 통한 치유에 도달한다. ‘면양정’은 공허하고 쓸쓸한 현실, 부정적 정치 현실로 인한 슬픔, 반감, 회한 등을 어루만지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평정심을 회복시켜 주는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次沖和弟俛仰亭絕句 四首>²⁴⁾ 중 (3)
 破得天慳啓玉區 하늘도 아끼던 이곳을 열어
 一登豪氣便高浮 한번 오르니 豪氣가 문득 드날려

23) 『俛仰集』, 卷之一, 詩, <俛仰亭> (司諫罷歸後作), a_026_198c,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24) 『俛仰集』, 卷之三, 詩, <次沖和弟俛仰亭絕句四首>, a_026_220d,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風回雨歇呈新霽
撲面山光翠欲流

비 그치고 바람 불어 새로 개이니
다가선 산 빛 물 흐르듯 질푸르다

‘면양정’을 개축한 60세에 지었다고 알려진 작품 4수 중 하나이다. 이제 좌절감이나 쓸쓸함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도 아끼던 곳이라는 자긍심과 드날리는 豪氣가 자못 도취의 自樂으로 넘친다. 비 그쳐서 갠 날씨에 산 빛은 얼굴 가까이 다가와 질푸른 빛으로 물들인다.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흥취가 돋보인다. 이 시에서 ‘면양정’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 도달한 송순의 마음이 아름답게 담겨 있다.

2.2. 여유와 달관, 자궁과 眞樂 - <면양정가>²⁵⁾의 자연

송순은 벼슬살이와 귀거래, ‘한양’과 ‘담양’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담양’의 장소 체험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그가 소망한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이상적 경지,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그 속에 사는 흥취의 최고점인 ‘眞樂’에 이른 것이다.

<면양정가>는 그가 담양과 서울을 오가며 겪었던 삶의 체험들이 행복감이었던 기쁨이었던 좌절감과 불안감이었던 그 모든 것을 승화시킨 끝에 도달한 가장 아름다운 경지를 보여준다. 이제 불안도 회의도 좌절도 없는 절대조화의 자연세계가 펼쳐지며, 송순의 장소감으로서의 ‘자연’이 정점에 도달한다. <면양정가>의 ‘자연’은 승화된 이상향, 자기응시와 평정심 회복 끝에 도달한 自樂의 경지, 여유와 달관, 자궁과 眞樂의 경지에 다름 아니다.

송순은 체험을 통해 자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에 가치와

25) 김명준, 「<성산별곡> 연구」,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247쪽, <면양정가>의 창작시기는 41세설(김동욱, 정의섭)과 치사 후 만년설-71세설(조운제, 김사엽, 이종건 등 대부분 학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장소성’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바, 만년설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면양정가>의 자연에 이른다. <면양정가>에서 자연은 송순이 선택한 의미 있는 구체적인 곳으로서 그가 지향하고 애정을 가진 곳을 확인할 수 있다. <면양정가>의 자연에는 송순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생활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벼슬하고 귀거래하며 살았던, 그 중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담양’과 ‘면양정’이란 장소는 송순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송순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양정가>에는 송순시가에 공통되는 부끄럼 없는 몇몇한 삶에 대한 표방과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浩然之氣의 흥취가 담겨있으며, 현실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담양의 세월봉에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면양정’ 정자와 소유자인 송순이 표방하는 규범적 은유성을 갖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면양정’이 至高至善한 사림의 이상적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또한 <면양정가>는 상호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요소를 상호 의존케 하여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평형과 조화를 유지, 중용·중화의 원리, 평형과 조화의 미, 均과 和의 미학이 드러난다. 송순철학의 기본으로서 敬과 直의 조화로운 효용에 힘썼던 삶에서 형성된 원리인 것이다. 또한 자연과의 합일에 의한 풍류, 나아가 자아와 이웃하고 있는 타자와의 합일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는 기쁨, 자아와 자연 나아가 자아와 인간이 합일된 순간에 도달 할 수 있는 유가의 이상적 경지에 도달했음에도 “亦君恩이샀다”로 임금을 떠올리는 유가적 이상으로서의 신선으로 형상화된다. 강호자연의 사림이 모든 시름을 잊고 풍류를 즐기며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하여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도 임금의 은혜로 생각하는 王道정치 至治를 생각하는 사림과의 義理之學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²⁶⁾

<면양정가>는 전반부에서 ‘景物의 조화로우움’을 (1)‘면양정’의 위치와 모양, (2)근경 (3)원경 (4)사계의 단계적 전개를 통해 사물현상 하나하나에

26)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앞의 책, 433-450쪽 참조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후반부는 주로 ‘자아의 흥취’를 (5)자연과의 합일 나아가 (6)자연화한 인간과의 합일 끝에 도달한 君恩에 의 감사를 통한 유가적 이상을 표현, 마무리한다. 즉 ‘景物의 조화로움을 발견한 자아의 흥취’, ‘物我一體’의 경지를 형상화한다. ‘(5)자연과의 합일’ 부분이다.

人間을 써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ㅎ고	저것도 드르려코
벼람도 혀려 ㅎ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료
아침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나을소나
오늘리 不足거니	내일리라 有餘ㅎ라
이 피히 안즈 보고	저 피히 거러 보니
煩勞흔 ㅁ음의	벼릴 일리 아조 업다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ㅎ리아
다만 ㅎ 靑藜杖이	다 피디여 가노미라

송순은 이제 불안감도 좌절감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겨를 없음’이 흥겹게 표현된다. 조동일은 <면양정가>와 이 부분에 대해 “못 다 이룬 것 때문에 좌절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거추장스러운 고사를 빌려오지 않고서도 자기생활이나 지닌 뜻을 설득력 있게 나타낼 수 있었다. 자랑스러운 고장에서 우뚝 서서, 구김살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연에서 저절로 얻는 흥취를 자랑 … 풍류를 즐기노라니 괴로움도 쓸쓸함도 없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작품에 이르러서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가 본격적인 표현을 얻어, 그 뒤에 두고두고 모범이 되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선이 된 듯이 행세하고 마는 것은 유가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 ‘이몸이 이렇 굵도 亦君恩이샷다’는 말로 마무리 삼았다. 자연의 흥취를 정치 바깥에서 찾는다고 해서 윤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⁷⁾며 극찬한다. ‘(6)자연

화한 인간과의 합일' 부분이다.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늑며 트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즈락
을프락 프람흐락	노혜로 노거니
天地도 넓고 넓고	日月도 흥가흥다
羲皇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 상의	李太白이 사라 오다
浩蕩 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곰도	亦君恩이샷다

술과 벗과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그지없는 기쁨이 형상화되어 있다. 자연과의 합일, 나아가 이웃하고 있는 타자와의 합일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는 풍류, 자아와 자연, 자아와 인간이 합일된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유가의 이상적 존재자로서의 송순이다.

<면양정가>는 송순 자연미학의 극치로 평가되며, 가장 조화롭고 이상적이며 호남사립다운 작품으로 자리매김 된다. 어지러웠던 정치현실과 삶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난 여유와 달관, 자공과 自樂의 경지를 만날 수 있다. 송순은 <면양정가>에서 주변의 자연을 온 품에 안은 듯, 꼼꼼하게 조목조목 서술(표현)한 섬세한 풍경 묘사로부터 먼 자연의 광대함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는 최고경지에 도달한다. 이후 송순이 강호문학의 선창자, 강호가도의 시작 등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자연’, 보다 구체적으로 ‘담양’ 혹은 ‘면양정’이라는 장소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자연은 일상적 삶인 동시에 꿈이고 이상향이었다. 그에게 자

27) 조동일, 앞의 책, 300-301쪽, 330-332쪽

연은 매일매일 밭 딛고 서 있는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고달프거나 힘든 상황이면 돌아가 의지할 수 있었던 진정한 고향이었다.

3. 현실과 이상의 갈등, 그 일시적 해소-〈성산별곡〉

3.1. 정철(1536-1693)의 삶과 경험 그리고 장소성

정철에게도 ‘담양’은 특별한 곳이었다. 16세에 내려와 서울로 올라가기까지 10여년을 살았기에 담양은 고향과 마찬가지로였다.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를 전전하며 배움도, 꿈도 시작 하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린 7년, 그리고 16살이었다. 그런데 ‘담양’은 벗과 스승을 만나게 해 주었고, 배움을 가능하게 했다. 결혼과 안정,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성장의 터전이었으며, 시인이자 학자, 정치가로서 우뚝 서게 한 근원적인 곳이었다.

정철은 4남 3녀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 세자 양제이던 큰 누님으로 인해 궁중을 출입하면서 두 살 위인 경원군(명종)과 어울려 어린 시절을 보낸다. 궁중 출입은 인종이 등극하고 누님이 貴人이 된 1544년에 그 절정에 이르고, 인종 승하(1545) 때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10살까지는 궁궐과 고난을 모르고 자란다. 가족사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단란하던 한 때, 가족의 사랑을 독점하고 궁녀들의 보호 속에 궁정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인종 승하(1545)와 함께 몰아닥친 을사사화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된다. 이후 ‘담양’에 정착할 때까지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 시절을 부모 따라 남북으로 떠돌아야²⁸⁾ 했다. 이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이었으며, 세상살이의 비애와 허무의식을 일찌감치 안겨 준 체험이었다.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궁중 출입이 자유롭던 지

28) 김석희, 「민족어의 연금술사」,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출판, 1999, 227-228쪽

난날과 비교하면, 한창 자라는 나이였던 소년기, 유배지 체험은 실로 큰 충격이었다. 훗날 그가 중앙 정치무대에서 파란곡절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든 권력의 중심부에서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성장기의 쓰라린 경험들로부터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배에서 풀려난 참판공은 부친 묘소가 있는 담양 창평의 당지산 기슭으로 거처를 옮긴다. 송강은 벼슬길에 오르기 전까지 약 10년간 이곳에서 생활한다. 지리한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중요한 청년 성장기를 ‘담양’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송강에게 ‘담양’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자,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다. 삼라만상에 눈뜨며 청춘의 꿈과 생각들을 영글게 하던 성장지요, 문학적 감수성을 담금질하던 텃밭이었다. 훗날 어지러운 현실 풍파에서 벗어나 고뇌와 갈등을 치유하고 위안을 얻던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했다.²⁹⁾

‘담양’은 특히 정철의 문학이 시작되고 성장했으며, 영글었던 곳이다. 그 배움의 시작에는 沙村 金允愷와의 인연이 전설³⁰⁾처럼 자리하고 있다. 이후 정철은 광산 김씨 장로격인 김윤제의 보살핌 속에 결혼하며, 호남 사림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송강의 향리생활은 주로 글을 읽고 사색하거나 시를 짓는 한편, 성산 부근의 정자와 원림(園林)을 출입하며, 거기에 모여든 당대의 쟁쟁한 문인·학자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시를 주고받으며 풍류를 즐기는 것이었다. 성산은 곧 그의 향리생활의 중심무대였던 것이다. 성산의 우리말 이름은 ‘별피’다.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산 이름이자 마을 이름으로, 창평읍에서 동남쪽으로 20리 안팎에 위치한 장원봉(壯元峯) 남쪽 기슭을 일컫는다. 이 산기슭에는 송강 당대의 사대부 문화와 문학의 산실 역할을 했던 이름난 정자와 원림들이 많다. 환벽당(環碧堂)·소쇄원(瀟灑園)·식영정(息影亭)·서하당(棲霞堂)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29) 박영주, 앞의 책, 32-33쪽

30) 김석희, 앞의 책, 229쪽. 벼슬에서 물러나 환벽당을 짓고 은거하던 김윤제와 이제 막 ‘담양’에 온 송강의 만남에 관한 설화

20리 전후의 거리에 송강정(松江亭)·면앙정(俛仰亭)이 있다. 이들 정자와 원림은 조선 중기 문학사에 눈부신 업적들을 남긴 이름난 문인들의 주요 활동무대이기도 했다. 이들 문인 집단을 총칭하여 ‘호남시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면앙정 송순·석천 임억령·사촌 김윤제·하서 김인후·고봉 기대승·송천 양응정·사암 박순·서하 김성원·고죽 최경창·구봉 송익필·옥봉 백광훈·제봉 고경명·백호 임제 등이 당대 시단의 대표적 인물들이다.³¹⁾ 이들과 교류하면서 송강은 ‘담양’에서 사대부로 성장해 간다. ‘담양’은 송강에게도 근원적인 삶을 가르쳐 주고, 문학적 지향점을 알게 해 준 학문적·사회적·예술적 뿌리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들 중 송강의 문학적 스승으로는 누구보다도 면앙정 송순과 석천 임억령을 든다.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의 대비적 고찰, 작가 이설, 식영정의 주인 논란 등에 늘 이 두 작가가 등장하는 것도 이들의 문학적 교류와 관련이 있다. 또한 송강과 김성원은 석천·하서 등을 모신 문하생으로, 처외재당숙으로, 평소 交親이 두터운 사이, 서로를 매우 공경하고 위하는 사이³²⁾였음을 알 수 있다. 정철과 김성원, 임억령과 고경명은 息影亭四仙이라 불리며, ‘성산가단’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시로 이름을 떨쳤는데, 사선 가운데 가장 젊었던 정철은 이 모임을 통하여 그의 문학적 역량을 한껏 극대화할 수 있었던³³⁾ 것이다.

이처럼 송강에게 ‘담양’은 자기 정체성 및 안정적인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곳이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곳, 호남사람의 전통 속에 사대부로서의 자각과 자부심을 영글게 했던 곳이다. 송강은 강직하고 적극적이며 신념에 찬, 그래서 외골수로서 굳건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한편, 시인으로서 낭만적·서정적이며 섬세하고 부드럽게, 이상적 자연을 노래하였다. 송강은 자신의 상황과 현실, 체험과 정서 그리

31) 박영주, 앞의 책, 224쪽

32) 최한선, 「성산별곡과 송강 정철」, 『한국고시가문화연구』 5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8, 681-692쪽 참고

33) 김석희, 앞의 책, 232쪽

고 지향을 노래하였는데 이러한 복합적 성향을 키워 준 토대가 ‘담양’과 그곳에서의 삶이었던 것이다.

3.2. 현실과 이상의 갈등, 그리고 위로 - <성산별곡>의 자연

<성산별곡>은 문답법과 김성원의 삶의 공간을 빌어 자연과 현실의 문제를 노래한다. 기존 <성산별곡> 연구에서는 서하당·식영정 주인, 작자, 창작시기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들이 존재해 왔다. 관련 기록들을 제시하고, 전해오는 문헌들의 제작시기, 이와 관련된 신빙성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한 논의들³⁴⁾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서하당·식영정 주인이 김성원이나 임억령이냐의 문제나 창작시기³⁵⁾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34) 최한선, 「성산별곡과 송강 정철」, 『한국고시가문화연구』 5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8, 677-706쪽에 이 모든 논란에 대해 특히 잘 정리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35) 김성배외, 『주해 가사문학전집』(민속원, 1997, 64쪽),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0(아세아문화사, 2005, 345쪽) 등에서는 모두 김사엽(『송강가사』, 문호사, 1959, 115쪽)이 제시한 『서하당유고』를 기반으로, 25세 창작으로 정리한다. 김석희는(앞의 책, 241쪽) 『석천집(石川集)』의 기록 그대로, 벼슬길에 든 이듬해인 28세 때에 임억령의 「식영정기(息影亭記)」와 함께 지었다고 추정한다. 박준규(「성산의 식영정과 <성산별곡>」, 『국어국문학』 94호, 국어국문학회, 1985, 5-24쪽)는 ‘식영정’ 창건 이후 창작을 전제로 『석천집』과 『서하당유고』 등 문헌기록을 살피고 정리하여, 사선들의 시교(詩交)가 두터워진 이후, 30세 전후(28-33세) 창작으로 본다. 조동일은(앞의 책, 310쪽) <성산별곡>을 송강 가사의 첫 작품으로 보기는 하지만, 창작시기를 동부승지로 진출했다가 전라도로 다시 물러난 42세 때인 선조 11년(1578)경으로 본다. 김선기(「<성산별곡>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5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8, 87-104쪽)는 송강과 김성원이 성산에 머물렀던 시기 등을 중심으로, 최한선은(앞의 책, 700-701쪽) 가의(歌意)의 내용, 문체, 진술상황, 발화내용, 분위기, 작가의 정치 현실적 상황 등을 감안, 50세부터 54세 사이 창평에 퇴거하고 있을 당시 창작으로 본다. 이 경우, <사미인곡> <속미인곡>보다는 <성산별곡>이 먼저 창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박영주(앞의 책, 194쪽), 최상은(「송강가사에 있어서의 자연과 현실-<성산별곡>과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50권, 한국국어교육학회, 1993, 189쪽)은 창작 시기를 자세히 밝히지 않으며, 그냥 벼슬하다 잠시 낙향하여 지낸 무렵, 혹은 당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초야로 돌아가 지낼 때 등으로 표현, 20대 창작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주장이 상존한다.

그러나 작가이설의 경우, 관련기록들에 작가가 송강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정철로, 서하당·식영정 주인은 김성원·임억령 등 자연에 침잠하고 애호하는 은일지사, 특히 호남사림³⁶⁾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성산별곡>은 당연히 송강의 작가의식, 사대부 의식 및 성산에 대한 장소성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서술방식(문답법-대화체, 사시의 아름다움 중심 서술 등), 서술태도, 특히 서사와 결사에 드러나는 현실과 자연에 대한 송강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성산별곡>에 드러나는 ‘담양’의 장소성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창작시기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송강의 생애와 <성산별곡>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며, 언제, 어떤 체험과 관련되어, 어떤 의도로 창작되었는지, ‘성산’의 아름다움이 송강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성산별곡>의 창작 시기를 25-27세로 보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서하당유고』의 기록, 식영정 창건 이후의 창작으로 보는 입장 등을 참고하여 그렇기도 하지만, <성산별곡>의 결사 부분에 드러나는 갈등과 번민, 회의를 당쟁에서의 패배 등 현실 정치 체험 후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1) <성산별곡>의 내용상, 서하당과 식영정이 건축된 이후여야 한다는 점 (2) <사미인곡><속미인곡>은 물론이요 기행가사인 <관동별곡>에서도 보이는 ‘戀君’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남아있는 작품 중, 유일하게 ‘戀君之情’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창작시기에 정철이 아직 벼슬살이 체험이 없었던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³⁷⁾이다. 송강은 27살

36) 호남 사림들은 그가 ‘담양’에서 체득한 사대부의 이상적 삶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 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손’과 ‘서하당·식영정주인’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주인’으로 김성원 혹은 임억령을 주로 언급한다. 그러나 ‘손’과 ‘주인’을 활용한 문답법은 송강이 주제를 드러내는 서술방식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손’은 ‘주인’과 같은 인물로, 결국 모두 송강 자신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한다.

37) 최한선, 앞의 책, 699쪽. “悽婉含淚의 戀君至情이 보이지 않은 것과 걱정과 흥분

과거에 급제하면서 비로소 벼슬길에 오른다.³⁸⁾ 이후 정철에게 임금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戀君은 현실적·정치적 염원과 함께 문학 창작의 근원이 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미인곡><속미인곡>과 가까운 시기에 창작되었다면 더욱 ‘戀君之情’이 없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3) <성산별곡>에서 김성원 등 은일지사의 삶을 이해하고, 그 歸隱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나 <면앙정가>가 보여주는 완전한 물아일체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4) 현실 정치와 자연 공간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번민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성산별곡> 창작 당시, 송강이, 실제로도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젊은 사대부였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최진원은 歸隱이 江湖歌道の 理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강은 끝내 歸隱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보며, 이 점을 송강 ‘處’의 특이성이라 본다. 대개 사대부들은 벼슬에서 물러나 鄉에 들면 대번에 자연과 합일해, 이른바 물아일체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강은 자연과合一하지 못하였고, 자연과의 합일을 자부하지 않았기에 그의 歸隱은 성립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³⁹⁾ 이러한 평가는 그의 기질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직, 현실 정치 체험이 없었던 송강이, 어린 시절 체득한 세상살이의 고통-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풍비박산되었던 충격과 유랑의 비애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적·정서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에 배움에 큰 뜻을 둘 수 없었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겪었던 절망과 허무 체험, 지워지지 않는 지난날의 기억과 고통의 흔적 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훗날 그가 중앙 정치무대에서 어떻게든 권력의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게 된 것도 성장기의 쓰라린 경

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아무래도 동서 양당의 분쟁이 극도로 심한 시기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아 보인다. 만약 동서 양당의 분쟁으로 성산에 물러나 있을 때의 작품이라면 연군에 대한 지정을 표출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50-54세를 그 창작시기로 본다.

38) 박영주, 앞의 책, 33쪽 참고

39)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8)1996, 174-175쪽

힘들로부터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⁴⁰⁾

<성산별곡>의 서사와 결사는 현실적 삶에 대한 염원과 관심이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동경보다 크게 느껴진다.⁴¹⁾ 그렇다면 서사와 결사에서 들리는 송강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사 및 결사는 <성산별곡> 주제 파악의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엇던	디날 손이	星山의	머물며서
棲霞堂	息影亭	主人아	내 말 듯소
人生	世間의	도흔 일	하건마는
엇디흔	江山을	가디록	나이 녀겨
寂寞	山中の	들고 아니	나시논고 42)

<성산별곡>은 닮은 듯 다른 ‘손’과 ‘주인’을 설정하여 자연 속에 사는 삶의 의미를 새겨보는 작품이다. 어떤 지나던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에게 ‘인생 世間에 좋은 일이 많은데’ ‘어찌 한 강산을 갈수록 낫다고 여겨’ ‘적막 산중’에 들고 世間에 나오지 않는 지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작부터 ‘손-주인’ ‘세간-강산’ ‘좋은 일-적막함’이 대칭과 대조를 이루면서 ‘지나던 손’이 ‘성산’에 머물게 되는 계기를 알려준다. 그 계기는 ‘서하당 식영정 주인’에 대한 관심과 세속적 염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궁금증에는 ‘좋은 일 많은 世間과 적막한 산중’이라는 피상적이고 단순한 이분법적 판단이, 인간 세상과 자연 공간 중에서 인간세상이 우위에 있다는 세속적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계기에는 정철의 삶의 체험이 드러난다. ‘성산-담양’에서의 정착이 ‘주인’의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대

40) 박영주, 앞의 책, 31-32쪽 참고

41) 정대림, 「<성산별곡>과 사대부의 삶」,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638쪽

42) <성산별곡> 원문은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0, 아세아문화사, 2005, 345-350쪽 이선본 <성산별곡>이다.

의 송강은 아직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러한 경지에 대한 참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때 송강은 歸隱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제 막 벼슬길에 나서는 젊은 사대부로서, ‘주인’의 삶의 경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어린 시절의 체험, 유학자로서 출-처 중에 아직은 ‘出’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졌을 시기였기에, 가능한 반응인 것이다.

松根을	다시 쓸고	竹床의	자리 보아
저근덧	올라 안자	엇던고	다시 보니
天邊의	씻는 구름	瑞石을	집을 사마
나는 듯	드는 양이	主人과	엇더흔고
滄溪	흰 물결이	亭子 알픽	둘러시니
天孫	雲錦을	뉘라셔	버혀 내여
닛는 듯	퍼티는 듯	현스토	현스홀샤
[山中의	冊曆 업서	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틴 景이	철철이	절노 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間이라] 43)

그러나 송근을 다시 쓸고, 죽상에 자리 보는 등 진지한 자세로, ‘성산’의 자연이 어떤 곳인지, ‘주인’이 왜 세상 좋은 일도 마다하고 나오지 않는 지, ‘다시 보게’ 된다. 그리고 깨닫는다. 서석을 집을 삼아 드나드는 천변의 구름을 보면서, 정자 앞에 둘러 흐르는 창계 흰 물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성산-담양’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주인의 경지가 얼마나 깊고 높은 지 깨닫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산중’은 세속과 달라, 책력이 필요 없음을, 그래서 눈 아래 펼쳐진 경치가 철마다 절로 알게 해주는 자연의 시간에 눈 뜨고, 나아가 ‘주인’의 삶의 공간에서 듣고 보는⁴⁴⁾

43) [] 부분은 대부분 서사에 포함시키지만, 본사 서두로, 四季 시작 부분으로 보기도 한다.

44) 최규수, 「<관동별곡>과 <성산별곡>의 어법적 특질과 의미」, 『온지논총』 3권, 온

모든 것이 仙間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주인’의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면서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화자는 세속적 시간이 필요 없는 곳에 있다. 한 계절만이 아니라 늘 아름다운 시간이 펼쳐지는 곳-‘仙間’이라 했다.⁴⁵⁾ 책력에 구애받는 세상은 인간의 질서·현실적 삶의 부침이 지배하지만, 아름다운 성산의 자연에서 그 모든 것을 잊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인’에 대한 세속적 염려가 동경과 예찬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손’이 묻고 ‘주인’이 대답하는 구조가 아니라, ‘손’ 스스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 뜨게 되고, 世間 좋은 일 많다고 생각했던 오류를 수정하게 되는 과정이 문답법에 담겨있는 것이다. <성산별곡>에서 문답법은 성산의 아름다움 +주인 삶의 아름다움을 알리려는 기법의 일종⁴⁶⁾으로 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강호 자연과 인간 현실의 통합이라는 일시적 위로를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본사는 전형적인 강호가사의 내용-四時 아름다운 성산의 자연을 여러 경치 묘사와 전래 고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릉도원’ (봄), ‘희황 벼개 위의 꽃잠’(여름), ‘수정궁·광한전’(가을), ‘경요굴·은세계’(겨울)로 일관되게 仙界·仙境으로 표현된 ‘춘하추동-성산 자연’의 아름다움은 서사 끝 부분에 언급했던, ‘仙間’의 구체화라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성산의 자연과 동화된 士林의 만족과 자긍심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仙翁’으로 자처하는가 하면, 인간세상 [世間] 과는 다른, 맑고 시원한 곳이라는 자랑, 청강에서 모래로 옹아 앉아 백구를 벗 삼아 즐기고 있는 오리처럼 무심하고 한가한 삶에 대한 자부, 적벽의 밤보다 아름다운 성산의

지학회, 1997, 43쪽에서는 ‘다시 보니’, ‘듯거니 보거니’라는 표현은 작가의 실 체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본다.

45) 김명준, 앞의 책, 238-239쪽

46) 양희찬, 「<성산별곡(星山別曲)>의 읽기맥(脈)과 성격(性格)」,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5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0, 193쪽에서 손과 주인의 대화가 아니라, 손의 발언만으로 이루어진 擬似對話形式이라 보며; 최한선, 앞의 책, 691쪽에서도 ‘손’을 ‘서하당·식영정 주인’과 같은 인물로 본다.

밤, 이백 [謫仙] 보다 더 좋은 삶이라는 자랑,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 산옹의 부귀를 알고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봐 저어하는, 이에 대한 경계 등이 그것이다.

사계절을 체험하면서 ‘손’(정철)은 이제 자연과 동화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주인의 목소리와 하나가 된다. 이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山中의	벗이 업서	漢紀를	빠하 두고
萬古	人物을	거스리	헤혀하니
聖賢도	만커니와	豪傑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곳 無心	홀가마는
엇디 혼	時運이	일락 배락	흐얏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옴도	그지업다
箕山의	늘근 고블	귀는 엇디	싯뎡던고
박소릭	핀계하고	조장이	ㄱ장 놓다
人心이	늦 ㄱ트야	보도록	새롭거늘
世事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ㄱ장	거후로니
ㅁ옴의	미친 시름	저그나	흐리는다
거문고	시웁 언저	風入松	이야고야
손인동	主人인동	다 니저	브려셔라
長空의	젓는 鶴이	이 골의	眞仙이라
瑤臺	月下의	헝혀 아니	만나신가
손 이셔	主人드려 널오디	그디 권가	흐노라

결사 부분에는 士林의 조화로운 삶, 정철이 ‘담양’에서 체득한 사대부의 이상적 삶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손’의 내면적 갈등과 번민의 해결 과정이 나타난다.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 그 흥취를 말하던 목소리는 갑작스럽게 현실에 갈등하는 목소리로 전환된다. 수많은 성현과 호걸들의 삶에서 확인되는, 일락배락하는 時運과 늘 새롭게 바뀌는 人心, 험

한 世事를 생각하며, 마음에 맺힌 시름과 애달픔을 술로 풀어 보려한다. 모든 시름 접어두고 ‘술’과 ‘거문고’로 ‘손’인지 ‘주인’인지 잊을 정도로 도도한 흥취의 산속 풍류를 노래하였다. 어찌 보면 잊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강한 미련을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때를 기다리며 자연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산-자연도 정철에게는, 어찌면 영원한 삶의 자리가 아닌 임시적인 쉼터, 기회만 있으며 떨치고 일어나 현실로 돌아갈 순간적인 안식처⁴⁷⁾일 뿐이라는 생각도 든다.

시름은 또 유배기 체험에 맞물리면서 애달픔으로 표출된다. 변하는 인심과 험한 世事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술과 거문고 연주에 얹어 부르는 풍입송 끝에 손과 주인이 하나가 되면서, 모두가 진선이라는 일시적 만족감에 도달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받는다. 이 순간, 서사에서 보였던 ‘世間과 산중’이라는 피상적이고 단순한 이분법적 판단이, 인간세상을 우위에 두는 세속적 염려와 판단이,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참 이해를 거쳐, 동경과 예찬과 긍정으로 바뀌면서, 손과 주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강호 자연과 인간 현실의 통합이라는 일시적 위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시름을 풀기 위해 동원되는 술과 음악은 세속적 초탈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듯 보인다. 자연은일의 삶이 온전히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과 ‘자연’, 나아가 ‘손’과 ‘주인’의 합일은 <면앙정가>에 보이는 자아와 자연 나아가 자아와 인간이 합일된 순간의 유가의 이상적 경지에 도달⁴⁸⁾했다고 보기 어렵다. 송순이 자연과 동화된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 흥취를 “羲皇을 모를너니 니적이야 괴로괴야/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라고 자신 있게 노래하는 반면에 정철은 살며시 주인에 미루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손’과 ‘주인’이 하나가 되었다면, ‘주인’만 眞仙인 것은 아니며, ‘손’ 또한 ‘眞仙’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음에도 “그딤 권가 흥노라”라 하면서 ‘眞仙’이란 예찬을 ‘주인’에게 미룸으로써, ‘손’의 떨치지 못한 현실에의 불안과 시름이 노출되고 있는 것

47) 정대립, 앞의 책, 639쪽

48)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앞의 책, 433-450쪽 참조

이다. 즉 ‘성산’의 아름다운 四時를 직접 체험해 봐도, 仙界라는 인식으로 큰 만족감과 안정감·자부심을 느꼈음에도, 궁극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時運과 人心, 世事の 변덕과 험난함 때문에 느껴지는 애달픔과 밀려드는 시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산별곡>의 자연이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곳, 세속과 유리된 은거지로서, 선계의 진선이라는 만족감에 기대어, 현실적 번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위로하는 의미를 지닌 장소지만, 결국 자신을 ‘손’으로 설정한 것은 ‘담양’을, 진정한 삶의 터전, 결코 떠날 수 없는 곳(송순처럼)으로 애착을 가진 곳이 아님을 의미한다. 송강에게 ‘담양’은 ‘지나가던 과객으로서 멈추어 머물며 보는 곳’⁴⁹⁾,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시운과 인심과 세사로 인해 마음속의 갈등과 번민을 떨칠 수 없었던 곳이었다. 이런 점에서 <성산별곡>은 완전한 몰아일체에 이르지 못하는 작품, 서론에서 언급한 호남사림의 전형적 강호시가라 하기 어렵다. 賞自然을 통해 철학적으로 天人合一의 경지를 체득하고, 미학적으로는 몰아일체의 희열을 맛보는 규범적·이상적 삶의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우주질서의 조화로움을 발견하고, 天의 법칙과 理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眞樂을 추구하던 문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산별곡>은 ‘손 이셔 主人드려 닐오디 그디 권가 흐노라’라고 말함으로써 진선이 되지 못한 채, 일시적 자기위안·갈등해소에 이른다. 유유자적한 삶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손’이 바로 송강 자신인 것이다. 이는 <관동별곡>에 보이는 득의에 찬 태도, 천상에서 쫓겨난 眞仙-진정한 자아가 원했던 삶의 표상-이었음을 꿈에서 확인하고 내적 갈등을 추스른 후, 이를 위로삼아 사회적 내적 존재-관찰사로서 현실로 회귀, 임금의 은혜가 온 천하에 빛나는 세상에 대한 예찬, ‘明月이 天山萬落의 아니 비취디 업다’로 마무리되는 관인으로서의 자기 긍정과 만족을 통한 갈등 해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49) 최규수, 앞의 책, 34쪽

<성산별곡>의 ‘담양’은 20대의 송강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펼쳐버릴 수 없었던 불행과 번민의 치유가 가능한 곳은 아니었다. 송순, 임억령 등 先人이나 김성원 등 성산 사선의 삶을 지켜보면서 가졌을 자연과 현실에 대한 이상적 생각이 반영되었지만, 벼슬길 체험이 없었던 송강에게는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尙存하는 곳, 술과 음악에 의한 일시적 해소만 가능한 곳이었다. 젊은 나이와 체험 부족은 절대 조화의 완벽한 <면양정가>의 ‘담양’과 달리 번민과 시름, 현실에 대한 미련이 尙存하는 곳이었다.

“松江도 때로는 山水에 容與하여, 은근히 歸隱은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松江에게 있어 歸隱은 한갓 동경일 따름이지 결코 理想은 아니었다. 松江은 歸를 隱으로 연장하지 않았다. 비록 歸에 處해 있더라도 기회가 오면 서슴지 않고 일어나 현실로 出하였다.”⁵⁰⁾라는 평처럼 <성산별곡>에는 이러한 삶의 태도와 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바, 송강의 이러한 기질은 바로 그의 유배지 체험과 정서적 충격, 유량과 그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성산별곡>의 ‘담양’은 이율배반적인 장소성을 지닌 곳이다. 오랜 고난과 유량을 끝내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자 정착지였으며, 잃었던 정체성을 되찾고 안정적 삶으로 돌아오는 의미를 지닌 곳, 안정과 성장의 장소였으나, 동시에 정치적 고난체험으로 인해 내재한 깊은 상처-벗어날 수 없는 불안과 그로 인한 욕망 때문에 탈출과 비약을 꿈꾸는 곳, 그래서 안주할 수 없었던 곳이기도 하다. 안정과 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유가적 이상의 성취를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곳이었다. 이는 젊은 송강의 현실적 고민의 반영인 것이다.

50) 최진원, 앞의 책, 177쪽

4. 맺음말 - 담양의 장소성, 그 차이와 의미

이상에서 살펴 본 바,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은 강호시가로서의 존재양상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적 성취의 지점이 다르다. 담양이라는 장소와 관련하여 그 체험과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 ‘담양’은 구체적 삶의 경험을 담지하고 있는 곳, 仙界-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곳, 歸隱의 이상적 공간,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한 곳, 따라서 조화와 합일에 의한 안정과 眞樂을 추구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었다. 특히 특정시대(16세기, 사화기), 특정지역(담양), 특정집단(호남사림)의 장소성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두 작품에 내재한 ‘담양’은 그 장소성에 차이가 있다.

<면양정가>에는 이미 유가적 이상세계가 구현되고 있다면, <성산별곡>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16세기 호남사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은둔과 기다림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자연은 ‘息影’의 공간일 뿐 同化나 즐길 대상이 아니다.⁵¹⁾ 이러한 은둔과 기다림은 <성산별곡>의 ‘담양’에 이제 막 벼슬길에 나가려는 송강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 벼슬길 체험을 가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혹은 어린 시절 체험에서 비롯된 은둔에의 내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년(70대)에 창작된 <면양정가>의 ‘담양’은 송순의 고향이었으며, 연륜과 인생의 깊이, 오랜 경험 끝에 도달한 최상의 경지로서 ‘자연’이었다. 반면, 20대 중후반에 창작된 <성산별곡>의 ‘담양’은 어린 시절 정치적 회오리에 휩쓸려 겪은 시련과 방랑의 체험, 10년의 성장기를 통해 익힌 학문과 문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송강의 체험과 관심이 드러나고 있다. 송강에게 ‘담양’은 ‘고향 같은 곳’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성장시킨

51) 박연호, 「문화코드 읽기와 문학교육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2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83쪽, 79쪽

곳이었지만, 아버지의 좌절과 방황 끝에 정착한 곳, 근원적 상처를 지닌 채 찾아들었던 타향이었다.

따라서 <면양정가>의 ‘담양’은 자연과 합일된 삶을 추구하는 낙천적이고 전형적인 歸隱을 노래한다. 절대조화의 자연세계, 여유와 달관, 자궁과 진락(眞樂)의 장소성을 지닌 곳이다. 반면에 <성산별곡>의 ‘담양’은 眞仙이라는 만족감에 기대어, 현실과 이상의 갈등, 그 일시적 해소의 장소성을 지닌 곳이다. 멈추어 아름다운 ‘담양’의 자연을 보면서도 세속의 시운과 인심, 세사로 인해 마음속의 갈등과 번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곳이었다. 이런 점에서 <성산별곡>은 완전한 물아일체에 이르지 못한 작품이다.

<면양정가>의 ‘담양’은 자아와 자연 나아가 자아와 인간이 합일된 순간에 도달 할 수 있는 유가의 이상적 경지이다. 강호자연의 사림이 모든 시름을 잊고 풍류를 즐기며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하여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도 임금의 은혜로 생각하는 王道정치의 至治를 생각하는 사림과의 義理之學이 반영된 곳⁵²⁾이다. 자랑스러운 고장, 구김살 없는 마음으로 바라본 자연, 괴로움도 쓸쓸함도 없는, 더 바랄 것 없는 자연⁵³⁾인 것이다. 정치현실과 삶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난 여유와 달관, 자궁과 自樂의 경지이다. 반면에 <성산별곡>의 ‘담양’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곳, 벼슬살이를 향한 열망을 잠시 접어두는 곳, 결국은 탈출해야만 하는 곳, 그래서 적막한 곳, 선경임을 동의·예찬하면서도, 그 끝에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녹아 있는 곳이었다. 젊은 나이와 체험 부족은 절대 조화의 완벽한 <면양정가>의 ‘담양’과 달리 번민과 시름, 현실에 대한 미련이 尙存하는 곳이었다. 이는 바로 송강의 유배지 체험과 정서적 충격, 유랑과 그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면양정가>의 ‘담양’이 송순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로서,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 부조리와 불안, 반감과 분노가 전혀 없

52)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앞의 책, 433-450쪽 참조

53) 조동일, 앞의 책, 300-301쪽 참조

는, 자궁심과 평정심·정서적 안정감을 지닌, 眞樂에 도달한 귀의처였다면, <성산별곡>의 ‘담양’은 자기 정체성의 회복, 안정과 성장의 안식처로서 仙境과 歸隱에 대한 동경과 예찬의 대상임에도, 미진한 현실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녹아 있는 곳,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출렁이는 갈등, 젊음의 불안과 욕망이 내재한 곳, 자연에 완전히 몰입·동화되지 못한 채, 그 일시적 해소를 도모했던 의지처였다.

참고문헌

-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0, 아세아문화사, 2005, 345-350쪽.
- 박영주, 『정철평전』, 중앙 M&B, 1999.
- 이종건, 『면앙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3.
- 에드워드 렐프, 심승희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이-푸 투한,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4.
- 김명준, 「〈성산별곡〉 연구」,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237-248쪽.
- 김사엽, 『송강가사』, 문호사, 1959, 115쪽.
- 김석회, 「민족어의 연금술사」,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출판, 1999, 225-255쪽.
- 김선기, 「〈성산별곡〉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5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8, 87-104쪽.
- 김성기, 『면앙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415-446쪽.
- 김성배외, 『주해 가사문학전집』, 민속원, 1997, 64쪽.
- 김수경, 「옥국재 가사 <착정가>에 나타난 ‘장소’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34, 한국시가학회, 2013, 83-118쪽.
- 김은희, 「송순 시가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 『한민족어문학』 제6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179-213쪽.
- 김학성, 「면앙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한국 고전시가의 전통과 계승』, 성대 출판부, 2009, 45-71쪽.
- _____, 「송순시가의 시학적 특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탐구』, 집문당, 1997, 433-450쪽.

- 박연호, 「문화코드 읽기와 문학교육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2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67-87쪽.
- 박준규, 「성산의 식영정과 〈성산별곡〉」, 『국어국문학』 94호, 국어국문학학회, 1985, 5-24쪽.
- 성기옥, 「宋純의 시조 한수가 들려주는 시의 꿈 하나」, 『시안』 제2권, 1998. 12., 61-77쪽.
- 양희찬, 「〈성산별곡(星山別曲)〉의 읽기맥(脈)과 성격(性格)」,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5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0, 191-214쪽.
- 정대림, 「〈성산별곡〉과 사대부의 삶」,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637-643쪽.
- 정익섭, 『호남가단연구』, 진명문화사, 1975, 132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6, 300-301쪽, 310쪽, 330-332쪽.
- 최규수, 「〈관동별곡〉과 〈성산별곡〉의 어법적 특질과 의미」, 『온지논총』 3권, 온지학회, 1997, 31-57쪽.
- 최상은, 「송강가사에 있어서의 자연과 현실 -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50권, 한국국어교육학회, 1993, 179-196쪽.
- _____, 「송순의 꿈과 〈면양정가〉의 흥취」, 『제13회 전국가사문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2. 11, 9-27쪽.
-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8)1996, 174-177쪽.
- 최한선, 「성산별곡과 송강 정철」, 『한국고시가문화연구』 5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8, 677-706쪽.
- _____,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7, 107-135쪽.

<Abstract>

A Study on the placeness of Damyang
- Focused on <Myeonangjeongga> and
<Sungsanbyeolgok>

Kim, Eun-hee

Despite <Myeonangjeongga> and <Sungsanbyeolgok> sharing the presence aspects of as the nature poetry, the point of the literary achievement is different. In relation with the place called 'Damyang', there are differences in meaning and its experience. In both works, 'Damyang' is, where it carries a specific life experience, where it has Sungye[dwelling place of Taoist hermit]-beautiful natural place, where it was loved as a ideal place for the reclusive life by Honam Sarim[a group of Confucian scholars in Honam region], where it

reaches to the spiritual realm of being person and nature as one, so it was consistent with the location of the sense can be completed to pursue the stability and true peace by harmony and coalescence. In particular, the works reflect a spatiality of a specific era(16th century, period of a massacre of scholars), a specific area(Damyang) and a particular group(Honam Sarim), In two works, there is a difference at the meaning of 'Damyang'.

'Damyang' of <Myeonangjeongga> which had been created in Song soon's later years(70s) was a hometown of Song soon, and it also was a 'nature' that had reached the end of many years of experience and life of depth. On the other hand, 'Damyang' of <Sungsanbyeolgok> which

had been created in Song gang's mid and later-20s embodied his exile experience, nomadic pain and experiences and concerns in his youth. 'Damyang' was the 'hometown' where the place had welcomed Song gang and had been grown him up. But the place, at once, was 'a strange place' where he had visited with a fundamental flaw and settled in the end of his father's frustration and wandering.

Therefore, 'Damyang' of <Myeonangjeongga> was the natural world of absolute harmony. And it embodied a placeness of philosophical view, breadth of mind, self-esteem and true peace. In the other hand, 'Damyang' of <Sungsanbyeolgok> embodied a placeness of the conflict and temporary settlement between the reality and ideal through the feeling of satisfaction which is the place is the ideal location. But Song gang had not fundamentally settled the conflict and anguish from the propitiousness of the times, generosity of the people and incidents despite he had stayed in the nature of beautiful 'Damyang'. As a resting place of worth attached by Song soon, 'Damyang' of <Myeonangjeongga> is a quiet center where he could feel the safety and love and a devotional place where he could reach to true peace with pride, calmness and emotional stability: without absurdity, anxiety, antipathy and anger. 'Damyang' of <Sungsanbyeolgok> is the subject of longing and admiration to an ideal land and reclusiveness as a resting place of stability, growth and recovery of self-identity. Also, 'Damyang' is a propping place that embodied interest and craving for some unsatisfied reality; inherited youth of anxiety and desire, conflict rippling among the beauty; planned to settle temporarily while had not fully immersed and assimilated with the nature. Because of Young age and lack of experience, there were always existed regret, anxiety and apprehension in <Sungsanbyeolgok> unlike the <Myeonangjeongga> showing absolute

120 韓國古詩歌文化研究 제35집

harmony.

Key words : Damyang, placeness, <Myeonangjeongga>, <Sungsanbyeolgok>,
Nature, Reclusiveness, Harmony, True peace, Reality, Conflict

투고일 : 2015년 1월 15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